



Special Destination ▶ Paris

## 파리 센 강 유역의 문화 명소

파리를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한가로이 오가는 것만으로도 찬란한 문화의 만화경을 경험할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에펠 탑 등 센 강 주변 명소들이야말로 파리를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꼽게 한 저력이다.

# Seine Meditation

Weave along the banks of Paris' river to witness a cultural kaleidoscope like no other. Waterside sights like the Louvre, Musée d'Orsay and Eiffel Tower are the reasons Paris is one of the world's most visited cities.







이번 파리 여행은 센 강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시테 섬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갈리아 족(族)의 한 갈레이자 파리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켈트계의 파리지 족은 로마군에 맞서 싸웠고, 12세기에는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의 성당을 이곳에 짓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섬세한 조각품과 화려한 프레스코화, 오싹한 형상의 괴물 석상 때문에 이곳은 파리에서도 특히 파리다운 가장 생생한 문화유적으로 손꼽힌다. 고개를 들면 당장이라도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 주인공인 노트르담의 꼽추가 종루에서 줄을 당기는 모습이 보일 것만 같다.

더 근사한 건, 엘리베이터 없이 387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성당의 탑에 오르면 센 강을 따라 곳곳에 자리 잡은, 파리가 자랑하는 문화유적이 한눈에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단 섬 서쪽 끄트머리 베르갈랑 광장부터 돌아보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연인들은 소풍을 즐기며 꼬마들은 신나게 뛰논다. 멀지 않은 풍네프 다리에는 센 강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강을 따라 서쪽으로 5분쯤 이동하면 루브르 박물관이 나온다.

루브르는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압수한 예술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며 문을 열었다. 10년 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는 아주 많은 그림으로 전시실을 채웠는데, 이곳을 찾는

Our story starts on the Île de la Cité, an island in the center of the River Seine. Here the Parisii tribe battled the Romans. Construction of a cathedral named Notre-Dame started on the island in the 12<sup>th</sup> century. Its solemn statues, dramatic frescoes and eerie gargoyles make it the most tangible cultural offering in Paris. Look up and you half expect to see novelist Victor Hugo’s hunchback, Quasimodo, swinging in the belfry.

Better still, by visiting the tower (387 steps, no elevator), you can take in a dozen other cultural icons stretching up and down the Seine. But start below the cathedral in the leafy Square du Vert-Galant, at the tip of the island. Here artists paint and lovers picnic as Seine boat tours depart from the nearby Pont-Neuf bridge.

A mere five minutes downriver is the Louvre. The museum opened in 1793, filled with art confiscated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Emperor Napoléon Bonaparte stuffed the salons with yet more paintings a decade later, including Leonardo da Vinci’s chef d’oeuvre, the *Mona*

사람들의 관람 목록 1순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그중 하나였다. 나폴레옹은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해서 처음엔 자신의 침실에 걸어놨다고 한다.

루브르를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꼽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몇 해 전부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오밍페이가 디자인한 대형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해 이제 그곳을 통해 전시실에 입장하게 된다. 루브르 박물관은 여러 층에 걸쳐 약 3만5000점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을 만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그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약 1000만 명이 찾는다고 한다.

예술을 감상했으니 이제 강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차례다. 튀일리 정원은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손꼽히는데, 이곳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오랑주리 미술관이다. 원래는 겨울에 오렌지나무를 보관할 용도로 지은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수련’ 연작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 잡았다. 모네의 이 유명한 작품은 얼마 전에 파리를 배경으로 한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통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정원 북쪽 모퉁이에는 자그마한 현대 미술 전문 갤러리인 주드폼 미술관이 있다. 이곳의 커다란 유리창으로는 센 강 건너

*Lisa*. The pint-sized French leader loved the painting so much that he originally kept it in his bed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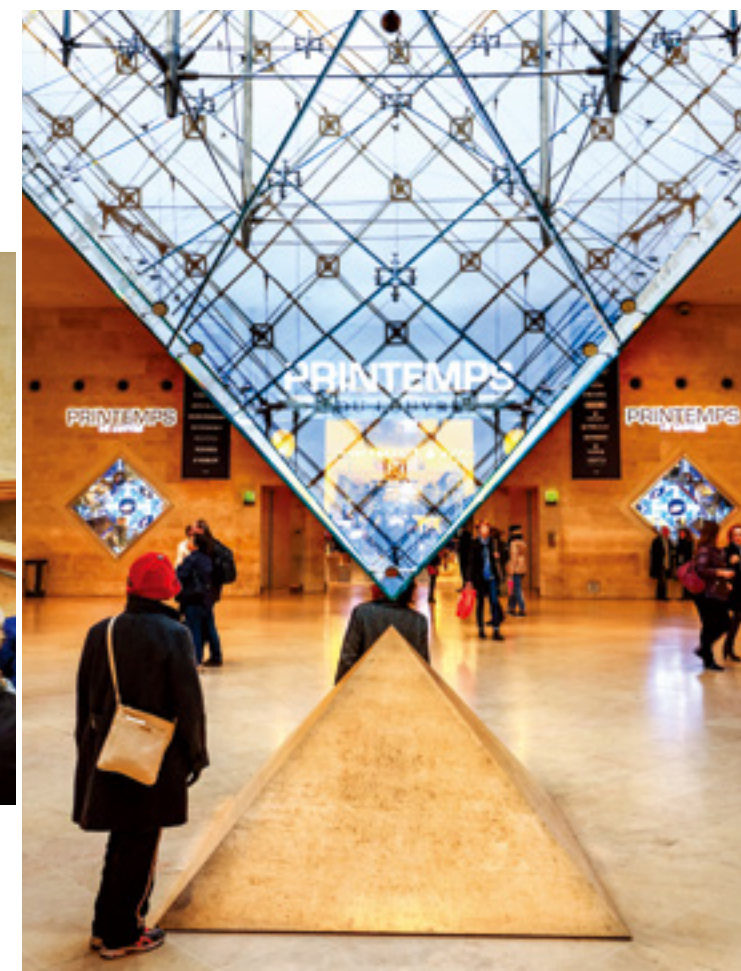
Today, visitors enter what is arguably the greatest museum in the world through a vast glass pyramid designed by architect IM Pei. Be aware that the Louvre has an embarrassment of riches: Some 35,000 works are displayed throughout the sprawling multistory structure. With almost 10 million annual sightseers, it is also the city’s most visited museum.

It is time for a breath of air near the riverbank. The Tuileries Garden is one of the largest parks in Paris. The garden’s edifying icon is the Musée de l’Orangerie. Originally constructed to shelter orange trees each winter, it was remodeled to house artist Claude Monet’s landmark *Nymphéas* series. Also known as the *Water Lilies*, this collection of paintings was pretentiously perused in the Woody Allen movie *Midnight in Pari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gardens is the Jeu de Paume, a petite gallery of contemporary art. Its grand windows afford views of the Eiffel Tower, across the Seine.

유람선 ‘베데트 뒤 풍네프’(왼쪽 페이지)를 타고 ‘모나리자’ 같은 명작(아래)을 소장하고 대형 유리 피라미드(오른쪽)를 설치한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명소를 두루 둘러보는 방법은 센 강 여행의 인기 코스 중 하나다.

Paris’ famous River Seine may be experienced on a boat cruise such as that offered by Vedettes du Pont Neuf (opposite), which passes the Louvre, home of the *Mona Lisa* (below) and a glass pyramid (right).





에펠 탑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안타까운 점이라면 프랑스 발명가인 자크 샤를이 200여 년 전에 누린 것만큼 전망이 좋지는 않다는 사실인데, 그는 1783년 12월 1일 4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수소 풍선을 타고 튀일리 정원 위로 날아올랐다. 550미터 상공까지 올라간 샤를은 당시 영국 해협을 향해 북쪽으로 꼬박 2시간을 날아갔다.

다분히 낭만적이긴 하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방법보다는 배를 타거나 자전거, 또는 강을 따라 걸어서 에펠 탑으로 가는 편이 더 안전한 것은 물론이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인 에펠 탑에 오르면 파리 시내는 물론 센 강을 따라 먼 곳까지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에펠 탑은 1889년 일반에 개방되기 전부터 그 자체로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324미터의 철탑을 짓겠다는 귀스타브 에펠을 미친 사람으로 치부한 이도 많았다. 정식 개장을 앞두고 사전 공개 행사를 진행할 때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에펠은 시 관계자와 신문기자들을 대동한 채 약 1700개에 달하는 계단을 1시간 가까이 걸어 올라가야 했다. 어쨌든 이 기념비적 건축물의 개장을 기념해 프랑스 국기의 적, 백, 청 삼색의 가스등이 도시 전역을 비추었다.

Alas, the view is not as impressive as the one French inventor Jacques Charles had some 200 years ago. In front of 400,000 spectators, he made the world’s first manned hydrogen balloon flight from the Tuileries Garden. Charles ascended to 550m, then floated northwards toward the English Channel for a good two hours.

It would be safer to sail, cycle or stroll further downriver to the Eiffel Tower. Climb Paris’ cultural beacon for a sweeping panorama of the far reaches of the Seine, beyond the city limits. The tower caused a stir even before it opened in 1889. Locals claimed Gustave Eiffel had gone mad when he submitted plans for the 324m “pylon,” then the world’s tallest building. On a tour ahead of the grand opening, the elevators were out of order, so Eiffel, together with a group of city officials and news reporters, took a whole hour to hike the approximately 1,700 steps (the current world record for running up the tower is around eight minutes). Gas lamps shone the red, white and blue of France’s flag across town.



도보길이 조성된 퐁데자르 다리는 센 강 북안의 루브르 박물관과 남안의 마자랭 도서관을 이어준다(왼쪽 페이지). 박물관이 여럿 들어서 있는 트로카데로 정원에서는 에펠 탑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온다(위).

The Pont des Arts pedestrian bridge stretches across the Seine from the Louvre to the Mazarin Library (opposite). The Trocadéro Gardens offer a view of the Eiffel Tower and have several museums, including a recently reopened anthropology gallery (above).

**예술의 고장** 까다로운 성미로 유명했던 소설가 기 드 모파상은 에펠 탑이 세워질 당시 이를 맹렬히 비난했다는데, 그가 보기에 이 기이한 형상물은 아름다운 문화 도시의 조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임에 틀림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모파상은 매일 에펠 탑 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파리 내에서는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그 자리에 미술랭 별점을 받은 유명 셰프 알랭 뒤카스의 레스토랑 ‘르 쥘 베른’이 있다. 에펠 탑은 그 후로도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1984년에는 로버트 모리아티라는 미국인이 비행기를 몰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모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인

**TWO SCOOPS OF ART** The Eiffel Tower was not appreciated by the somewhat grumpy novelist Guy de Maupassant, who supposedly lunched in the tower’s restaurant every day so as to avoid gazing at the structure itself. The eatery, now known as Le Jules Verne, is managed by Michelin-starred chef Alain Ducasse. The Eiffel Tower remains such an imposing structure that American pilot Robert J Moriarty was inspired to fly an airplane through it in 1984. The following year, Roger Moore chased Grace Jones from the tower’s edge in the James Bond movie *A View to a Kill*. This summer, 120,000 revelers will be invited to a Fan Zone at the base of the structure to watch all 51 games of the UEFA Euro 2016 soccer tournament, hosted by France.

For further culture, it is best to stick to the river. Seine tour boats, from luxury cruises to hop-on, hop-off shuttles, routinely round the île aux Cygnes, a skinny pedestrian island that splits the river in two near the Eiffel Tower. Have your camera ready for the Statue



〈뷰 투 어 킬〉에 로저 무어가 에펠 탑 위에서 그레이스 존스를 추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2016년 여름에는 12만 명의 축구팬이 탑 아래의 지정된 ‘팬 존’에 모여 프랑스가 개최하는 UEFA 유로 2016의 51개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파리의 문화를 조금 더 만끽하고 싶다면 강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 센 강 유람선은 에펠 탑 인근에서 강줄기를 돌로 가르느 보행자 길이 조성된 시뉴 섬을 정기적으로 지나가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카메라에 담으려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각상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4분의 1로 축소한 것인데, 미국 뉴욕 항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실은 프랑스가 제작해 미국 시민에게 선물한 것이다. 센 강 하류로 내려갈 때는 왼쪽에서 반짝이는 레쟁발리드의 황금 돔을 잊지 말고 눈여겨보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비롯한 프랑스의 전쟁 영웅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다.

레쟁발리드에서 센 강 건너를 바라보면 상상력이 발동할 것이다. 그때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 최대의 문화 행사였던 1900년 만국박람회가 그 강둑을 중심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놀라운 혁신이었던 유성영화와 자동으로 움직이는 계단, 그리고 땅콩 기름을 연료로 방문객을 수송하는 디젤 열차를 보기 위해 무려 5000만 명이 만국박람회장을

of Liberty. It is a quarter-scale replica of the New York original, which was constructed in France and given to the American people. Downriver on the left, look out for the shining gold dome of Les Invalides. French war heroes, including Napoléon Bonaparte, are buried inside.

The side of the Seine across from Les Invalides captures the imagination. Back in 1900, this stretch of riverbank was the focal point for the greatest cultural show the world had ever seen, the Universal Exposition. Also known as the World’s Fair, it brought about 50 million visitors to Paris to see such groundbreaking innovations as films with sound, mechanical escalators and diesel trains, which, fueled by peanut oil, shuttled visitors around the capital. Much of the show took place under the 45m-high dome of the Grand Palais, made of glass and steel.

Though it served as a military hospital during World War I, it now hosts exhibitions dedicated to the likes of French fashionista Jean Paul Gaultier. Be sure to catch the current exhibition *Picasso.mania*, which runs until the end of February 2016. Renaissance paintings, plus 19<sup>th</sup>-



생루이 섬(왼쪽)은 같은 센 강에 자리한, 인근 시테 섬(위)의 명성에 가려 그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이 섬에 있는 ‘글라시에 베르티용’의 아이스크림 맛은 일품이다. 오르세 미술관 전경(오른쪽 페이지).

Île Saint-Louis (left) is often overshadowed by its larger neighbor on the River Seine, Île de la Cité (above), though it has ice cream shops like Glacier Berthillon. The Musée d’Orsay (opposite).

찾았다. 당시 수많은 행사가 유리과 강철로 만든 그랑 팔레의 돔 지붕 아래에서 열렸고, 오늘날에도 파블로 피카소에서부터 장 폴 고티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작가들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 세잔과 모네를 비롯한 19세기 화가들의 작품은 바로 옆에 있는 포트 팔레에서 만날 수 있다.

20세기 이후의 작품이 보고 싶다면 강을 따라 조금 동쪽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자. 1900년에 만국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위해 세운 기차역이 지금은 매력적인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미술관 앞으로 흐르는 센 강의 풍경을 즐겨 그린 피에르 보나르와 알베르 마르케의 작품도 유리 천장을 통해 비쳐드는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미술 감상을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 문화 순례에서 벗어나 생루이 섬을 찾아가보자. 이 유람기에서 맨 처음 언급했던 노트르담 성당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섬이다. 그럴싸한 미술관도 없고, 여행객도 거의 찾지 않는 파리 한 귀퉁이의 이 울창한 섬에는 낭만적인 노천 카페가 즐비하다. 글라시에 베르티용 앞의 긴 줄을 발견한다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자. 1954년에 문을 연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알려진 가게다. 글 카트린 토마세티 사진 루시 데벨코바

century work by artists including Paul Cézanne, Claude Monet and Jean-Auguste-Dominique Ingres, are exhibited in the Petit Palais, next door.

For a collection of definitive art from the 20<sup>th</sup> century, look no further than the Musée d’Orsay, just upstream. A former train station built to bring travelers to the 1900 Universal Exposition, it is now an artistic emblem in its own right. Light pours onto canvases by Pierre Bonnard and Albert Marquet, who both painted scenes of the Seine, which flows by out front. Other great names in its collection include Paul Gauguin and Auguste Rodin.

Enough art for one day? Step off the cultural tour trail and onto Île Saint-Louis, the tiny Seine island opposite the Notre-Dame Cathedral, where our story started. With few museums and tourists, this leafy corner of the capital is sprinkled with sidewalk cafés. Join the queue of locals at Glacier Berthillon. In business since 1954, it offers the tastiest traditional ice cream in Paris.

By Kathryn Tomasetti Photographs by Lucie Debelkova



# Culture Along the Canals

## 센 강의 별자리 강변 박물관과 미술관

파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예술과 문화를 감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도시의 대동맥과도 같은 센 강변에서 멀리 벗어날 필요가 없다.

To see the world-class art and culture on display in Paris, you need not stray far from the city's main artery.



센 강 주변에는 동서로 점점이 박혀 별자리를 이루는 문화 명소가 많다. 물론 도심 쪽의 방문객 수가 많고, 양쪽 끝의 박물관은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문화 순례길의 출발점은 트로카데로 정원이다. 1937년에 조성한 이곳의 사요 궁에는 여러 개의 박물관이 모여 있다. 해군박물관과 유적박물관 외에, 2015년 10월에 재개관한 민족학박물관도 주목할 만하다. 강 건너편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캐 브랑리 미술관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미술관 전면의 800제곱미터를 이국적인 식물로 뒤덮은, 가히 '살아 있는 벽'이라 칭할 만한 외관이다. 세계의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칠레 이스터 섬 석상과 호주 원주민의 나무껍질 회화 같은, 유럽권 밖의 문화와

유물을 강조하는 전시가 참신하다. 캐 브랑리 미술관에서 동쪽으로 향할 때는 코를 막는 게 좋다. 파리하수구박물관은 도시의 깊숙한 곳으로 방문객을 안내한다. 여러 세기 동안 이 도시의 땅 밑을 지나간 유서 깊은 터널 2400킬로미터 가운데 일부를 따라 걸어볼 수 있다. 국립장식미술관에서는 현재 한국의 공예 디자인, 패션, 그래픽 디자인을 조명한 <지금, 한국>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쪽에는 이곳의 랜드마크 격인 아랍세계연구소가 있다. 역시 장 누벨의 작품인 연구소 건물은 240개의 감광 자동 셔터를 이용하여 무어인의 전통 기법을 표현한 외관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이곳에서는 아랍의 역사와 과학, 그리고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A constellation of cultural sights extends along both banks of the Seine. Quite naturally, the museums at either end are among Paris' least visited. This artistic avenue starts, on the west, with the Trocadéro Gardens. Built in 1937 for an International Exposition, they contain a neoclassical palace that is home to several museums, including the Musée de l'Homme, an ethnography gallery that reopened in October 2015. Across the river is the Musée du Quai Branly. Designed by Jean Nouvel, it is hard to miss. Its most innovative feature is a "living wall" of exotic plants that covers 800sqm of its facade. The inside is more interesting



still. Interactive displays (such as moving streams of words projected onto the floor) highlight artifacts from non-European societies, including a giant head from Easter Island and tree-bark paintings by Australian Aboriginals. Hold your nose as you head further east. The Musée des Égouts de Paris, or Paris Sewer Museum, invites visitors into the bowels of the city. Walk along portions of the 2,400km of historic tunnels that have served the city's nether regions for centuries. It is a bit smelly, but at least visitors do not have to row through effluent as they were obliged to a century ago. To the east is the Institut du Monde Arabe (Arab World Institute). The building, also by Jean Nouvel, uses 240 photosensitive mechanical shutters to filter the sunlight, a modern take on a Moorish screen. Permanent exhibitions at the institute shed light on Arabian history, science and art.

© Marianne Sera (above right)

# End of the Line

## 신(新) 문화 공간의 간판 오르세 미술관

명실공히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로 부상한 오르세 미술관은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차가 오가는 역이었지만, 오늘날 문화 도시 파리에서도 손꼽히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Though the Musée d'Orsay has become an essential tourist stop in Paris, it was established in a former transportation hub only a few decades ago.



The Universal Exposition of 1900 brought the world to Paris for a six-month festival of innovation and left the city with several enduring icons, including the Grand Palais. The summer Olympic Games were even held near the river at the same time. Authorities sought a train station on par with the grandeur of the fair. On the opposite bank of the river from the Grand Palais, the Gare d'Orsay rail terminus was built to bring the crowds to the culture. In keeping with the era, it was designed in beaux-arts style. Its fleet of electric trains dispensed with soot and steam, allowing a glass roof to enclose the terminus. Period painter Édouard Detaille claimed that the structure "resembles a Palace of Fine Arts." Alas, as trains were slowly diverted to the Paris suburbs, the Gare d'Orsay declined in stature. In the years after World War II, the station fell into disuse. In a risky move, it was saved from

demolition by a French minister and turned into yet another museum. By 1986, the station's creative renaissance had come to fruition. In place of train tracks, a central sculpture alley adorned the brand-new Musée d'Orsay. Canvases by van Gogh and others grace the middle levels. The top floor hosts Postimpressionist paintings from the former station's epoch — works by Monet, Renoir and Cézanne. Light from the glass roof now illuminates the art. Overlooking the entire scene is the original station clock. It is now the 10<sup>th</sup>-most-visited museum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rt Newspaper*.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무려 여섯 달에 걸쳐 진행된 혁신의 축제였고, 전 세계가 그 축제에 동참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다. 만국박람회는 이 도시에 영원한 상징 몇 가지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샹젤리제 거리에 자리 잡은 건축물인 그랑 다르세.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과 조각품이 장식된 오르세 미술관은 당시의 스타일을 좇아 보자르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전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매연과 증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차역의 지붕을 유리로 마감할 수 있었다. 풍속화가인 에두아르 드타유는 이 건축물이 마치 순수미술공간과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차가 서서히 파리 외곽으로 벗어나며 따라 오르세 역의 위상도 쇠퇴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눈부신 건축물은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급기야 철거 위험에 처했지만,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조성한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1986년에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과거 철로가 놓였던 자리는 현재 조각상이 전시된 중앙 통로로 변모했다. 가운데 층에는 고흐와 고갱 등 대가들의 작품이 자리하고, 꼭대기 층에는 기차역 시절을 품미한 모네와 마네, 르누아르, 세잔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다. <아트 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오르세 미술관은 전 세계 미술관 가운데 관람객 순위 10위에 랭크되었다.



# Sailing the Seine

파리를 즐기는 가장 낭만적 방법  
센 강 유람선 여행

파리의 문화적인 면모를 만끽할 방법은 많지만 가장 낭만적인 방법은 역시 유람선을 타는 것이다. 다양한 취향에 가까이 화답하는 유람선들이 센 강을 오간다.

Among the many ways to experience the French capital's cultural waterway, the most romantic is surely a pleasure cruise.



toast during the tower's hourly light show. The cruise operator also offers a private art tour, during which the Seine's artistic highlights are described by an expert guide. For a less expensive cruise, try Vedettes du Pont Neuf (www.vedettesdupontneuf.com).

These open-topped barges have lined up by the Île de la Cité bridge near Notre-Dame since the 1950s. Sixty years ago, the wooden boats had a capacity of just 30 guests. Now, vessels with retractable glass roofs escort up to 550 passengers under the Pont Alexandre III to the Eiffel Tower and back again. For the most flexible Seine cruise, purchase a day pass on Batobus Paris (www.batobus.com). Use this hop-on, hop-off ticket to shuttle between nine of Paris' top sights, including the Musée d'Orsay and the Louvre. Like floating conservatories, their all-glass sides offer 360-degree views of one of the world's most charming cities.

'요트 드 파리(www.yachtsdeparis.fr)'는 센 강을 오르내리는 가장 우아한 유람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급을 지향하는 이 유람선 회사는 1993년에 '동 위양 1호'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 뒤를 이은 개초비 스타일의 '동 위양 2호'는 벽난로와 참나무 패널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요트 드 파리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동 위양 2호'를 타고 즐기는 저녁 선상 유람이다. 승객들은 장인이라 부를 만한 기 크랑제르 세프가 제공하는 바닷가재 가스파초를 포함한 다섯 가지 코스 요리를 즐기게 된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 배를 타고 루브르부터 에펠 탑에 이르는 파리의 명소를 두루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 매시 정각에 불빛 쇼를 펼치는 에펠 탑 근처에 이르면 선장이 잠시 배를 멈추고

삼페인으로 축배를 제안한다. 조금 저렴한 배편을 원한다면 '베데트 뒤 풍네포(www.vedettesdupontneuf.com)'를 추천한다. 천장이 개방된 이 바지선들은 1950년대부터 노트르담 성당 근처의 시테 섬 다리 옆에서 운항해 왔다. 60년 전의 나무 보트에는 최대 탑승 인원이 고작 3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개폐식 유리 천장의 호화로운 선박이 최대 550명의 승객을 태우고 풍 알렉상드르 3세 다리를 지나 에펠 탑까지 갔다가 되돌아온다. 자유 일정으로 센 강 유람을 즐기고 싶다면 '바토뷔스 파리(www.batobus.com)'에서 1일권을 구입하자.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를 포함한 파리의 명소 가운데 아홉 곳을 유람선을 타고 내리며 관람할 수 있다.

Yachts de Paris (www.yachtsdeparis.fr) has the most elegant riverboats on the Seine. The high-end cruise company started in 1993 with the vintage vessel Don Juan I. Its successor, the Gatsbyesque Don Juan II, boasts an open fire and oak-paneled walls. The most famous of Yachts de Paris' offerings is its dinner cruise aboard the Don Juan II. Guests embark for a *voyage gastronomique* by the Pont de Sully bridge. Artisan chef Guy Krenzer then charms diners with a five-course menu that includes lobster gazpacho. The best part? The carousel of sights, from the Louvre to the Eiffel Tower, where the captain halts for a champagne

## 찾아가는 길

샤를드골 공항에서 파리 도심으로 가려면 에르메르 베 철도 노선을 타거나 루아시뷔스 셔틀을 타면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대중교통 회사인 RATP(www.ratp.fr)가 운영한다. 센 강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버스과 지하철, 보트 등 10여 가지가 있다. 벨리브(http://en.velib.paris.fr)라는 공영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1800군데에 달하는 도시 전역의 대여소에 2만 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다. RATP는 지하철과 도시간 열차, 버스, 오를리 공항 전철,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일권을 판매한다.

## 추천 숙박지

노르담 생 미셀 호텔(www.hotelnotredameparis.com)은 센 강과 노트르담 성당을 굽어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라크루아가 호텔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맡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최고 수준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르 루아얄 몽소(www.leroyalmonceau.com)를 추천한다. 윈스턴 처칠과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새 단장을 하기 전에 이곳에 묵었다. 2010년에는 개성이 넘치는 또 한 명의 프랑스 디자이너인 필리프 스타르크가 이 대형 호텔의 인테리어 작업에 참여했다.

## 추천 레스토랑

미술관 별점을 받은 레스토랑만 70곳이 넘는 파리는 미식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더 난감할 수도 있다. 별점 세 개에 빛나는 파비옹 르두아얄(www.pavillon-ledoyen.fr)은 센 강에서 멀지 않은 샹젤리제 정원에 있다. 레스토랑이 위치한 건물은 시의 소유이며, 180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자리를 지켜왔다. 오랜 세월 동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작가와 화가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조금 소박한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트로카데로 정원 근처에 있는 라 파티세리 시릴 리냐크(www.lapatissierieryllignac.com)에 가보자.

## 센 강 주변 서점

'빛의 도시'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은 파리는 1만 종이 넘는 소설과 가이드북, 여행 서적에 영감을 주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한 세기 전에 이곳에 상주하며 <파리는 날마다 축제>를 집필했다. 사학자 그레이엄 루이 쓴 <파리지앵: 파리의 모험사>는 프랑스 혁명부터 퇴폐주의가 휩쓴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파리의 극적인 순간을 풀어낸다. 센 강변의 서점인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1950년대부터 이런 책들을 구비해놓고 장서 애호가들을 맞이했다. 센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노천의 고서점들에서도 보석 같은 문학 서적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파리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Paris daily.

## GETTING THERE

To reach central Paris from Charles de Gaulle Airport, simply catch an RER B train or a Roissybus shuttle, both of which are operated by the public transport company RATP (www.ratp.fr/en). There are many ways to navigate the Seine, including bus, Metro and boat. The funnest way to get around may be Paris' Vélib (http://en.velib.paris.fr) bike-share scheme. Grab one of the 20,000 bikes installed at 1,800 stations across the city. RATP offers day passes that cover its combined Metro, rapid transit, cross-city train, bus, Orly Airport links and funicular railway.

## WHERE TO STAY

Hotel Notre-Dame Saint Michel (www.hotelnotredameparis.com) overlooks the River Seine and Notre-Dame Cathedral. The hotel interior was designed from top to bottom by zany fashion guru Christian Lacroix, whose influences include opera costumes and 1950s films starring Gina Lollobrigida. For unparalleled class, check into Le Royal Monceau (www.leroyalmonceau.com). Winston Churchill and Ernest Hemingway bedded down in its previous incarnation. In 2010, the offbeat cross-city train, bus, Orly Airport links and funicular railway.

## WHERE TO EAT

With more than 70 Michelin-starred restaurants, Paris is a gastronome's paradise. One of the three-starred establishments is Pavillon Ledoyen (www.pavillon-ledoyen.fr/en), now run by Yannick Alléno and located not far from the Seine, in the Champs-Élysées Garden. The building is owned by the city and has stood in its present location since the mid-1800s. A who's who of writers and painters have dined there over the years. For something a bit more humble, like a croissant, try La Pâtisserie Cyril Lignac (www.lapatissierieryllignac.com/en).

## LITERATURE ON THE SEINE

The City of Light has inspired over 10,000 novels, guides and travelogues. Ernest Hemingway was a resident columnist here a century ago. His memoir *A Moveable Feast* conjures up a Paris of artists, easy virtue and boulevard culture. *Parisians: An Adventure History of Paris* by Graham Robb is a lucid retelling of local drama, from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decadent 1920s. Riverside bookshop Shakespeare & Company has been stocking such titles since the 1950s. Literary gems can also be found at the bouquinistes, the bookstalls that line the Seine.

